

# 예스24 강남에 놀러 오세요!

예스24가 2016년 4월 1일 젊음과 문화의 거리 강남역에 오프라인 중고서점 '예스24 강남'을 열었습니다.

강남역 롯데시네마 건물 지하 1층에 약 830㎡(250평)의 규모로 자리한 예스24 강남은 중고도서를 직매입

하는 '바이백 서비스'를 통해 모인 8만 여권의 중고도서와 중고DVD, 중고음반, 책 관련 소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책을 편하게 고르고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콘셉트로 설계됐으며, 특히 500원 균일가 및 최대 60% 할인 등 부담 없는 가격으로 중고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정판 도서와 절판 도서 등 희귀본 판매는 물론 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소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예스24의 전자책 단말기 크레마 시리즈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독서를 돋는 키즈존을 구성하고 아이가 책을 읽고 고를 수 있도록 중고전집 상담 서비스를 함께 운영해 연령대에 맞는 전집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SUMMER



# 문화 교류의 물결을 일으켜라! 한세예스24문화재단을 소개합니다

김동녕 회장의 사제출연으로 2014년 설립된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을 통한 깊은 교류관계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간 한세예스24홀딩스 그룹이 해외 협력국가와 맺어 오던 경제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역사와 사회, 예술, 철학 등 문화 분야까지 이우르고 있습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 지원은 물론,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번 6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염색원단을 소개하는 '바틱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보다 밀접한 상호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사업소개



### 해외봉사활동지원

**해외봉사활동을 통한 문화교류 증진**  
한세예스24문화재단의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문화교류의 증진을 도모하며 글로벌 청년리더의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름방학 중 10여 일 동안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문화 교류단으로서 문화교류봉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한국어 전공 베트남 대학생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알아가는 간담회도 진행합니다.



### 장학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및 문화생활 후원**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 수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프렌즈' 행사 참여를 후원함으로써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앞장 서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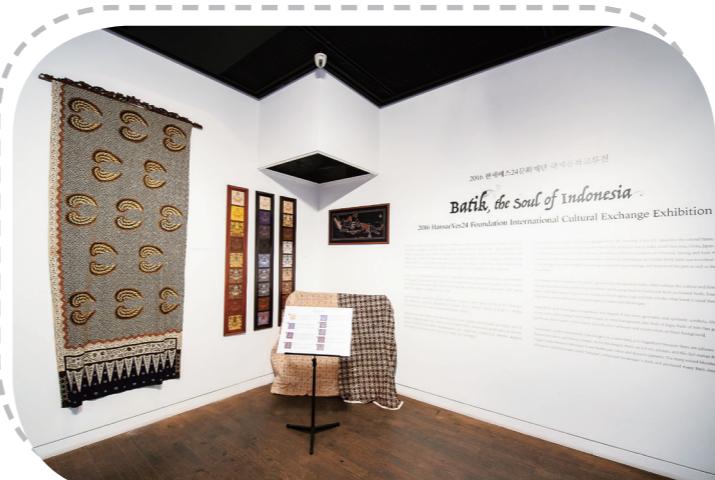
### 학술연구지원

**아세안 각국의 학술 문화 발전 지원**  
**한국-아세안 회원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아세안의 미래와 풍요로운 사회발전을 위해 학자 및 학술단체의 연구활동과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한세예스24문화재단 전자도서관'을 구축하여 외국인 학생 및 학자들에게 유용한 학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지원

**한국-아세안 회원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아세안 회원국의 문화예술을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소개하여 각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의 젊은 문화예술인을 발굴, 지원 및 전시회,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5년 7월 '베트남 미술전', 2016년 6월에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염색원단을 소개하는 '바틱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소식

### 제2회 국제문화교류전 '바틱, 인도네시아의 영혼 – Batik, the Soul of Indonesia' 개최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가나인아트센터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제2회 국제문화교류전 '바틱, 인도네시아의 영혼 – Batik, the Soul of Indonesia'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바틱전시회는 해외, 특히 아세안 국가의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개최한 제1회 국제문화교류전 '베트남 미술전'에 이은 두 번째 전시입니다.

전통 바틱에 담긴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 예술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한국에 알리고 나아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예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전시는 한세예스24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아세아 센터, 자카르타 직물박물관이 후원하였습니다.

바틱(Batik)은 인도네시아의 전통 수공예 직물 염색법으로, 2009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전시는 전통과 현대 두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자카르타 직물박물관과 한·인니문화연구원 소장품을 비롯한 전통 바틱 60여 점과 전통 문양과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섬유예술로서 바틱을 재해석한 현대 바틱 4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전시 첫날 열린 오프닝 세레머니에는 존 프리세티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외교부 최영삼 문화외교국장,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바틱 예술가이자 패션 디자이너인 하리 다르소노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연합뉴스TV, 매일경제 등 많은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 제7기 대학생 해외봉사단, 지난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봉사활동

한세예스24문화재단 제7기 대학생 해외봉사단이 지난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서류심사와 두 차례 면접을 통해 봉사단원 20명을 선발하였으며, 왕복 항공료와 숙식비 등 활동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한세실업이 2010년부터 운영하던 대학생 해외봉사단의 연장선으로, 2010년 1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146명의 대학생 해외봉사단을 배출했습니다.

이번 봉사단은 구찌 장애인학교와 구찌 고등학교를 방문해 태권도 교실, K-POP 공연, 전통 무용 공연, 미술 및 체육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교육 봉사를 수행하였습니다.

## 경쟁력 높이는 작지만 중요한 차이 | CAD실

기술이 발전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즉 디테일이다. CAD실은 바이어의 가려운 곳, 아쉬운 부분을 한발 앞서 채워 주는 디테일을 책임지는 부서다.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작지만 중요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 CAD실을 소개한다.



### 더 나은 품질, 더 합리적인 비용을 향해

###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팀워크

CAD실은 제품 생산과 영업 이전 단계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다. 패턴실에서 나온 기본 패턴을 사이즈별 패턴으로 변형시켜 공장과 바이어에 전달하는 그레이딩과, 한 벌의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단의 양을 파악해 영업을 지원하는 요체가 주요 업무다. 그레이딩이 잘 돼야 사이즈에 관계없이 옷맵시가 살고, 요체가 잘 돼야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가 가능하다. CAD실의 역사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그레이딩과 요체 업무가 어패럴 CAD 시스템으로 자동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리 회사는 수작업과 어패럴 CAD 시스템이 공존하던 과도기에 비교적 빠르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후로 전문성 강화를 위해 CAD 업무를 별도의 실로 분리하면서 줄곧 한 발 앞서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죠.” CAD실을 이끌고 있는 이은희 실장은 CAD실의 가장 큰 강점으로 오랜 시간 여러 바이어와 다양한 아이템을 작업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꼽는다. 업계 내에서 비교적 긴 CAD실의 역사와 바이어 규모에 더해, 저마다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주도하는 구성원 여덟 명의 역량 또한 한세실업 CAD실의 자랑거리다.

“특히 그레이딩의 경우, 기계적으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제품 특성에 맞춰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레이딩이 잘못되면 표준 사이즈보다 크거나 작은 사이즈의 디자인이 허술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은 바이어 쪽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 벤더의 역할을 더 크게 요구하는 추세예요. 우리 CAD실에서는 바이어가 전 사이즈 패턴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지영 대리는 그레이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부분으로 여러 바이어의 특성 파악을 꼽는다. 바이어나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 그레이딩 요령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바이어와 함께하는 첫 작업이 어려워요. 그래서 바이어와 일선에서 만나는 영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죠.”

CAD실 업무는 패턴실, 에이전트, 샘플실, 공장 등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지만, 특히 영업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은희 실장은 상대적으로 이동이 찾고 인원도 많은 영업부의 직원들을 비롯해 관련된 여러 부서와 무리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CAD실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말한다. 원활한 소통으로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CAD실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킬수록, 요체와 그레이딩으로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영업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전문성과 소통 능력이 CAD실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이라면, 개인의 역량을 CAD실 전체의 역량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유기적인 팀워크다. 이은희 실장은 CAD실의 빈틈없는 팀워크를 만드는 것은 구성원들의 책임감이라고 말한다.

“우리실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량에 어울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덕분에 관련 부서와 바이어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죠.”

CAD실 특성상 꾸준히 전문성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원 대부분이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손발을 맞춰 온 점도 팀워크에 긍정적인 요소다. 경력직으로 입사해 한세실업 CAD실 근무 6년 차인 안지영 대리는, CAD실에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스트레스는 덜어 주고 의욕은 북돋워 주는 소중한 동료라고 말한다.

“오래 함께 일한 데다 여자들끼리 모여 있어서인지, 무엇보다 말이 잘 통해서 좋아요. 요즘 멋진 남자 연예인 같은 소소한 일상부터 업무 중에 속상하거나 힘든 일까지 터놓고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금방 풀리죠. 나른한 오후엔 맛있는 간식으로 기분전환하고 나면 업무 효율이 쑥쑥 오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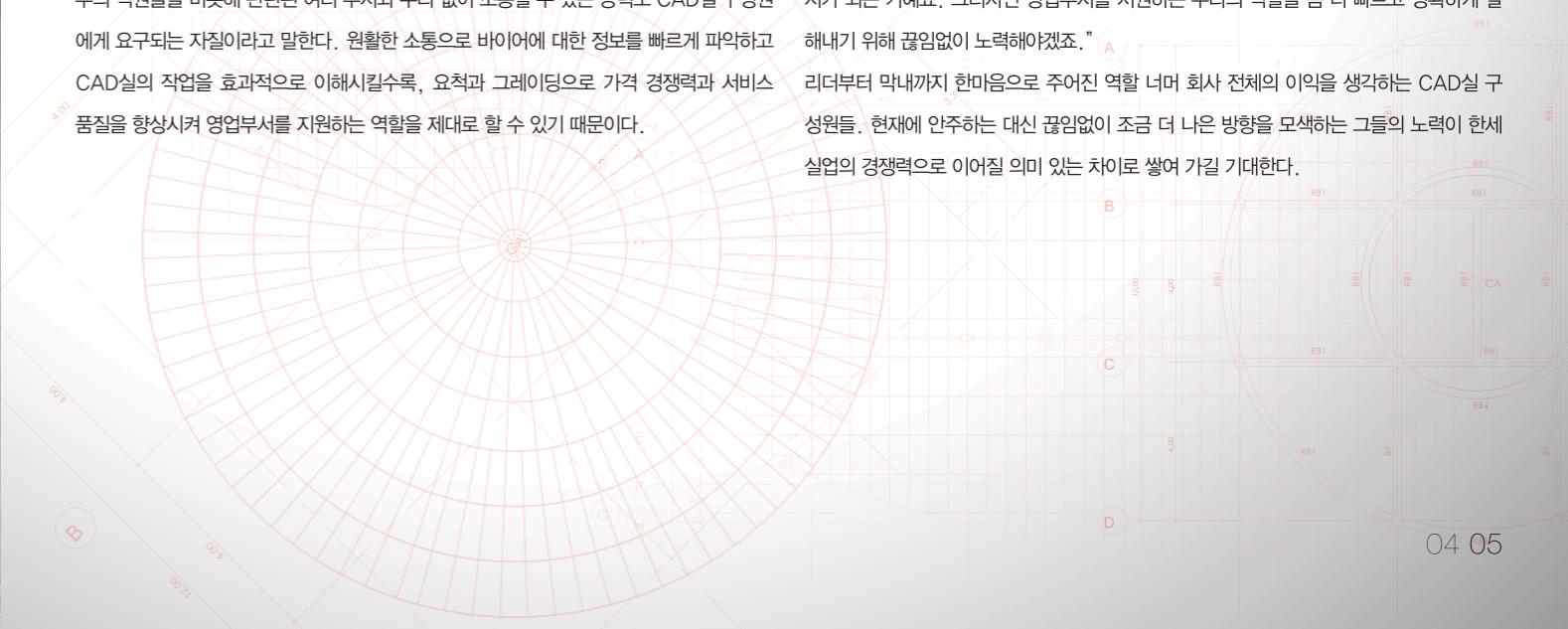
역시 경력직으로 입사해 한세실업 CAD실 근무 4개월 차인 막내 신지희 주임에게 CAD실 구성원들은 본받고 싶은 선배이자, 업무 역량을 쑥쑥 키워 주는 백과사전 같은 존재다.

“우리 CAD실에서는 직급이 높고 경력이 오래된 선배일수록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런 선배들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기죠.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선배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아요. 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면, 제게 꼭 필요한 부분을 바로 알려 주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선배들이 도와주니 부지런히 노력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빨리 배우고 싶어요.”

유능한 것도, 서로 도우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CAD실의 팀워크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은 여덟 명의 팀원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목표는 바이어의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로 회사의 수주에 기여하는, 꼭 필요한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부서를 지원하는 우리의 역할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죠.”

A리더부터 막내까지 한마음으로 주어진 역할 너머 회사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CAD실 구성원들. 현재에 안주하는 대신 끊임없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그들의 노력이 한세 실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의미 있는 차이로 쌓여 가길 기대한다.



## 화보로 보는 패션 트렌드

데님 캐주얼 브랜드 FRJ Jeans와 한세드림의 유아동복 브랜드 모이몰론&컬리수의 핫한 화보가 탄생했다. 한세가 제안하는 패션 트렌드를 화보로 살펴보자!

### FRJ jeans, STAR를 만나다

FRJ Jeans가 bnt 화보를 촬영하는 스타들을 위해 다양한 데님 스타일링을 제안했다. bnt 화보는 인문 노출이 많을뿐더러, 촬영현장 영상도 함께 보도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매우 높다. 대세 스타들이 완벽히 소화해 낸 FRJ Jeans 제품을 만나보자.

#### 가수 기희현

상의 | 실사레터링프린팅루즈핏티셔츠  
(F62F-TM764S)  
하의 | L톤워싱슬립스커니핏  
(F62F-DP372B)



#### 배우 박하선

상의 | 변형넥롱티셔츠  
(F62F-TM783B)  
하의 | L톤반디지워싱보이핏  
(F62F-DP655B)



#### 모이몰론, 컬리수 17년 S/S 화보촬영 후기

유아동복 트렌드를 선도하는 한세드림. 여타 브랜드보다 앞서 2017년 S/S 화보컷 촬영을 끝냈다. 아직 기저귀도 못 떤 아기 모델들과 함께 하는 모이몰론 촬영장 분위기는 마치 놀이방 같다. 마냥 어린 아기들이 어떻게 모델 포즈를 취할 수 있을까 싶지만, 사탕과 과자로 사선을 유도하여 촬영하면 멋진 결과물이 탄생한다. 과자를 잡기 위해 뻗은 손동작, 내딛는 발걸음과 표정이 성인 모델보다도 자연스럽다.

모이몰론의 아기 모델보다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5~6살의 컬리수 모델들과 촬영하는 게 더 쉬운 일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잠시도 기만히 있지 못하는 어린이 모델에게 시크한 표정과 포즈를 요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다. 또한 한참 성장하고 있는 나이인지라 엎드려 빠져 여러 표정을 요구할 수 없는 모델도 있고, 키 차이가 많이 나는 모델도 있다. 하지만 촬영 후 포토샵 작업을 통해 다양한 편집 및 보정을 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촬영은 현장에서 변수가 많아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 결과물을 받게 되면 밝게 웃는 아이들이 떠올라 금세 뿐만 아니라 뜻해지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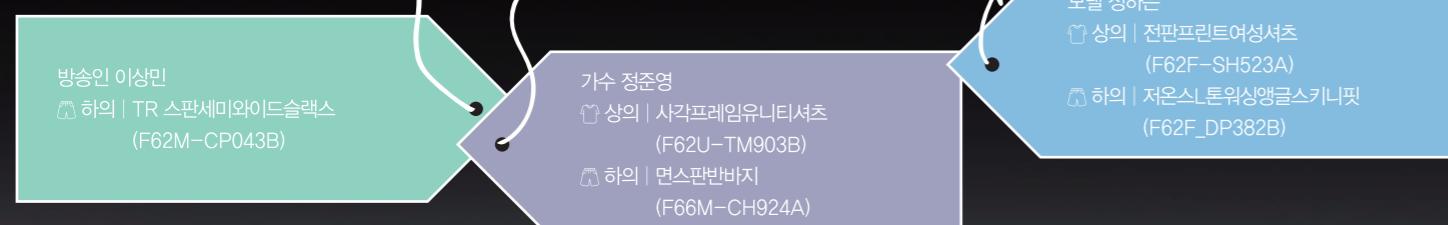
#### 모델 정하은

상의 | 전판프린트여성셔츠  
(F62F-SH523A)  
하의 | 저온L톤워싱앵글스커니핏  
(F62F\_DP382B)



#### 방송인 이상민

하의 | TR 스판세미와이드슬랙스  
(F62M-CP043B)



#### 가수 정준영

상의 | 사각프레임유니티셔츠  
(F62U-TM903B)  
하의 | 면스판반바지  
(F66M-CH924A)



## 베트남 TG법인은 오늘도 성장 중

이번 어름호에서는 한세의 베트남 TG법인을 소개합니다! 2013년 초 설립된 베트남 TG법인은 현재 기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법인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통해 베트남 현지 공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_베트남 TG법인 총무 김민우 주임



### 개선을 통해 성장하는 TG법인, LEAN Team



2015년 9월, TG법인의 Lean팀이자 한세의 첫 Lean팀이 개설되었습니다. 매니저 김경환 차장을 필두로 한 총 13명의 현지 직원들로 구성된 Lean팀은 TG법인의 각 공장 프로세스를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봉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사용됐던 네 가지 혁신 사상인 5S, TPM, 6시그마, Lean을 분석하여 그것들의 우수한 부분을 어떻게 봉제 산업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및 관리자들과 협의하여 우리만의 방법으로 한세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Lean팀은 공장의 개선은 공원들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세가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회사도 넘을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이 개선점을 스스로 생각해 보고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공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이 공원들에게 축적된다면 다른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효과적인 우리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Lean팀은 6시그마를 이용한 품질에 대한 불량 원인과 개선점 파악, 매달 개선 테마를 정하여 실천하는 공장 정기 개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TG법인의 사기를 팍팍!



TG법인은 지속적인 변화와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공원들이 회사에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Team building 행사, 조장/총조장 대상 초청 강연회 등 공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Team building



Team building 행사는 매년 진행하는 야유회를 대신하여, 공원들이 좀 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공원들이 2~3개의 팀워크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공원들간의 Team work를 증진시킬 수 있었으며, 공장장, 생산기획 등 모든 관리자들도 참석하여 관리자와 공원 간의 유대감도 높였습니다.



### 조장/총조장 대상 초청 강연회



각 공장의 조장/총조장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함양시키기 위한 초청 강연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초청 강연회의 첫 번째 강사로는 유명인사인 에베레스트 등정 산악인 'Phan Thanh Nhien(팜 탄 니엔)'을 초청하였습니다. 에베레스트 정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꿈의 설계/실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모두가 경청하였으며, 공원들은 초청 강연회가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TG법인을 비롯해 VN, TN법인도 많은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 서의 한세실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TG법인은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 시도에 앞장서 베트남 공원들에게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생산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한세 가족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발전해나가는 새로운 TG법인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의 휴가기 : 키르기스스탄 트레킹

안녕하세요. HANSAE: in에 저의 여름휴가기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원시자연과 만년설을 고이 간직한 중앙아시아의 알프스, 키르기스스탄으로 떠나 볼까요?

글\_수출 7A본부 신태식 이사



지난 6월 4일부터~12일까지 8박 9일간 이른 여름휴가로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키르기스스탄 트레킹을 다녀왔다. 이번 트레킹은 KBS 2TV '영상앨범 산' 프로그램에 7월 17, 24일 '태고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2부작으로 방영되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한기운데 위치한 나라,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인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다소 생소한 이 나라는 일 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과 신비로운 빙하, 야생화와 조화를 이루는 계곡과 폭포 덕에 중앙아시아의 알프스라 불리고 있다.



이번 트레킹은 텐산산맥의 소쿠루크(2,000m) 협곡에서 시작해 알라아르차 국립공원(2,920m) 방향으로 3박 4일간 텐트 아영을 하는 일정이었다.



소쿠루크 협곡에 들어선 지 이틀째, 해발 3,000m에 가까워지자 키 큰 나무들은 차츰 사라지고 길은 한층 더 투박해졌다. 신비롭게 빛나는 설봉이 길동무를 자처하며 고된 여정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길이 정비돼 있지 않아 한 발 내딛기가 쉽지 않았지만 순백의 설원을 품은 산을 바라본 순간, 힘든 것도 금세 잊혀졌다. 날카로운 잣빛 바위산 위로, 만년설이 수북이 쌓인 고요한 세상은 시간이 멈춘 듯 태고의 신비가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아조르네 캠프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겨울이 머무르고 있는 땅 위에 텐트를 치고 하늘에 펼쳐진 별들의 향연, 친밀한 밤을 감상하면서 그간의 피로함을 대신했다.



다음날, 우리 일행은 이른 새벽부터 이번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아조르네 전망대(3,400m)로 향했다. 원형 그대로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곳, 그 속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발견하니, 이대로 시간이 멈춰 버려도 아쉬울 것 하나 없을 만큼 황홀했다.

이번 키르기스스탄 트레킹을 통해 원시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위대함을 생각하면서 그간의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더욱 회사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 A PIECE OF THE

# HANSAE NEWS



##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에, 실제 모델 서희태 지휘자 초청 강연회**

● 지난 5월 12일, 한세실업을 비롯한 그룹 전 임직원들을 위한 전사강연회가 열렸다. 이번 전사강연회에서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강마애(김명민 씨)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서희태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연사로 초청해 '마에스트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서 지휘자는 "다양한 악기를 지닌 오케스트라는 다채로운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과 같다"며 "오케스트라에 생기를 불어넣어 최대한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한세실업, 제15차 우수사원 뉴욕연수

지난 5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15차 우수사원 뉴욕연수가 진행되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우수사원 미국연수는 직원들의 해외 유명마켓 현장 체험은 물론, 한세실업이 생산한 제품이 미국에서 어떻게 진열, 판매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수 참가자들은 뉴욕에 위치한 한세실업의 디자인 센터를 방문, 최신 디자인 트렌드와 바이어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5.

컬리수 '제2회 프렌치 식사 에티켓 클래스' 성료  
지난 6월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열린 '제2회 컬리수 프렌치 식사 에티켓 클래스'가 성황리에 마무리 날 진행된 클래스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엄마와 아이 50여 명이 참석해 주한 프랑스 문화원 담당자 및 컬리수 임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프랑스 문화원 출판진흥부 부팀장관 달리엘 로셰의 환영사와 박은령 업부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유명 프렌치 레스토랑 매니저인 소드망쉬 강사의 프랑스 식사 예절 수업이 50여 분간 진행됐다.



한세드림, 모이몰른&컬리수 2017 S/S 중국 수주회 개최

한세드림은 지난 7월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2017 S/S 모이몰론, 컬리수 수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국내 상품 기획자 및 디자이너들이 참석한 이번 수주회에는 상해와 북경을 비롯해 중국 전 지역에서 총 120여 명의 대리상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세드림에 대한 중국 시장의 높은 기대를 증명했다. 또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이몰론, 컬리수의 브랜드 인지도에 힘입어 기존 매장 운영 점주들은 모이몰론, 컬리수 두 브랜드의 복합 매장 오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장성통신기술(CTI) 앞에 네이버와 여성암재 '여성차별 가장 덜한 기업'에 네이버-한세실업		2016년 05월 31일 0005번 기업	
성별 다양성 지수 기업 순위	자료: CEO스코어	성별 다양성 지수 기업 순위	자료: CEO스코어
순위	기업명	순위	점수
1	한세실업	1	한세실업
3	아이티드래밀리	2	77
4	CJ E&M	3	76.5
5	아이티드래밀리	4	76
6	SKC월드	5	75
7	신세계인터내셔널	6	74.5
8	한민약품	7	74
9	아마존사파리	8	71.5
		9	70
			CJ CGV

한세실업, 여성이 일하기 좋은 대기업 1위 선정

한세실업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대기업 1위에 선정되어, SBS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번 조사는 직원 수 500명 이상의 24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2015년 3년간의 '성별 다양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로서, 한세실업은 이보다 함께 가장 높은 점수인 77점을 기록,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한세실업은 특히 여성 임원비 중 20%로 20점 만점을, 여성 고용비 중 56.4%로 체 평균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해 19점을 받았다. 특히 2013년 6위, 2014년 5위, 2015년 1위로 매년 순위를 올려 그 의미를 더했다.



동아출판, 한국청소년항공우주학회와 '하이탑 멘토링' MOU 체

4. 동아출판은 지난 6월 30일, 청소년 학술단체 한국청소년항공우주학회와 창의적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기호 동아출판 대표와 채연석 한국청소년항공우주학회 고문 및 학회 소속 학생들이 참석했다. 동아출판은 청소년들이 과학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과학 인재로 성장하도록 돋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체결식에 참석한 한국청소년항공우주학회 회원 중에는 중학생 시절 동아출판과의 인연으로 미국 나사(NASA)를 견학했던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동아출판은 협약에 따라 ▲한국청소년항공우주학회에서 진행하는 학회와 학술지 제작 후원 ▲학회 회원의 과학 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7 플레이키즈프로, 2017 S/S 미국 수주회 참석

- 한세드림 플레이키즈프로 사업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 까지 3일간 진행된 미국 뉴욕 Haddad 본사 2017 S/S 수주회에 참석했다. 수주회에는 플레이키즈프로를 포함한 전 세계 고객사들이 참석하여 전 시즌에 대한 리뷰와 다음 시즌 전략 및 콘셉트, 제품에 대해 논의하였다. 플레이키즈프로는 나이키와 컨버스키즈 의류 및 용품의 한국 총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 소비자와 시장에 맞는 시즌별 제품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FRJ Jeans, 2017 봄시즌 신상품 품평회 개최

FRJ Jeans는 지난 7월 12일 2017 봄시즌 신상품 품평회를 개최했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젯셋(Jet Set)족과 로드 트립을 메인 컨셉트로 한 100여 종의 신상품이 발표됐다. 또한 신상품 발표 외에 프리미엄 데님 라인 강화에 대한 향후 계획과 전략도 함께 공개했으며, 품평회에 참석한 롯데백화점 평촌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등 전국 주요 매장 매니저들과 질의응답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